#### **SEPTEMBER. 5. 2021**

# PRESCHOOL NEWSLETTER

BETHEL CHURCH \* 유아부 주보







### Our Vision

유아부의 비전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신체, 지성, 감성, 영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The vision of our preschool group is to help the children to meet Jesus as the Lord, and encourage them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at grow their body, wisdom, emotion, and spirit with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Calendar

9/5 September Birthday Party Bible Reading Award

9/26 유아부 Open House

9/30 Submit Your June Bible Reading Chart









# Announcement

1. 유아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Preschool group is newly reorganized!

나이는 만 3-5세이며, 할렐루야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주부터는 2, 3부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새롭게 반배정이 되었는데, 혹시 반배정을 못 받으셨다면 장지은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주세요.

Age is between 3-5, service is at Halelujah Chapel. Starting next week, there will be 2nd and third service available. If you have not been assigned in a group, please reach out to Pastor Jang Jieun.

#### 2. ATTENDANCE 출석을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보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답입 선생님 게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Please send a picture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attending our worship service on Sundays. You can collect talents.

#### 3. Daily BIBLE Reading 성경읽기표

Please mark the calendar with the days that you and your child read the bible together and send it to your teacher by 9/31.

(To qualify you must read it for at least three days!)

## Bible Lesson

복음 여행! GOSPEL JOURNEY! 요한복음 3:16 / JOHN 3:16

칙칙폭폭!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복읍 여행을 떠나 볼 거예요!

노란색 역: 노란색은 '천국'을 의비해요. 천국은 아름다운 하늘나라,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곳이랍니다.

검은색 역: 검은색은 '죄'를 발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발과 생각, 행동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되어요.

빨간색 역: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발해요. 예수 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반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현색 역: 현색은 '깨끗해진 바음'을 발해요. 예수님을 바음 속에 모셔드리면, 새까만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요. 예수님을 바음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나요? 그럼 같이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제 바음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초록색 역: 초록색은 '성장'을 발해요. 쑥쑥 자라나는 푸른 나무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 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